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롬 10:5~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뒤 별안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삶을 참으로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속세를 떠나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앉아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나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채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를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들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 종교적인 사람, 도를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민족,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사람, 믿음의 사람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절기와 행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롭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는 이 율법을 지킬만한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처럼 쉽고, 이것처럼 가깝고,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구절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6절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마음에 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6절의 뜻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7절을 보십시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쉬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주 만물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공기를 돈을 주고 판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랑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진리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거나 바다에 가서 진주를 따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예, 다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제 설교에 동의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제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누군가와 제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와 함께 나누면 말씀이 입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이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괜히 옆에 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 근처로 이사도 오고 결혼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좋으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 자꾸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실력없는 교수는 강의를 어려운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력있는 교수는 강의를 아주 쉬운 말로 합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교수 스스로 이미 그 내용을 다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없는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 마음의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새 한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알아맞추면 너를 살려주겠다.”

아주 교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는 살 것이다”라고 하면 왕은 새를 죽일 것이요, “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살려 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 안에 있습니다. 삼키던지 뱉던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새벽기도회에 나와야 한다하는 법칙을 자꾸 만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술·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끊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오십시오. 그것을 끊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끊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오십시오. 어떻게 건강해 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 집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요, 밤을 새도록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오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이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결정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결정되어 말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둘째,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

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얼마전 오성연 장로님께서 한동대학에 가셨는데, 김영길 총장님과 하룻밤을 지내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총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 저방 다니시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안방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저도 그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죽는 것처럼 어렵고, 원수가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젓이 보이도록 크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십시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

내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강물과 같은 기쁨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

11,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났습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 하더군요. “비야 오지 마라!”라고 한다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진리는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부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져서 비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온누리신문 」 제공 - <http://www.onnurinews.com/>